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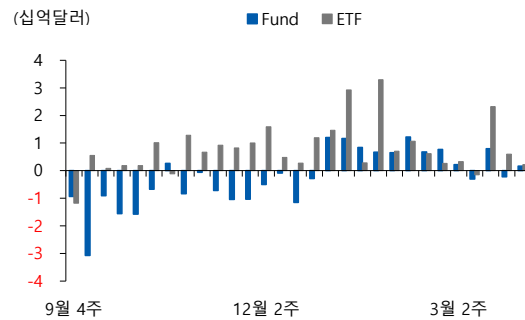


주요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1.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 순유입 이어감

- 3월 실리콘은행 파산과 CS은행 위기 등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 그러나 세계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은행권 불안이 진정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회복
- 글로벌펀드시장의 신흥국주식펀드는 3월에도 순유입 이어감.
- 3월 국내주식시장에서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매크로 환경 변화에 민감한 국가들이 순매수 상위.

글로벌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는 순유입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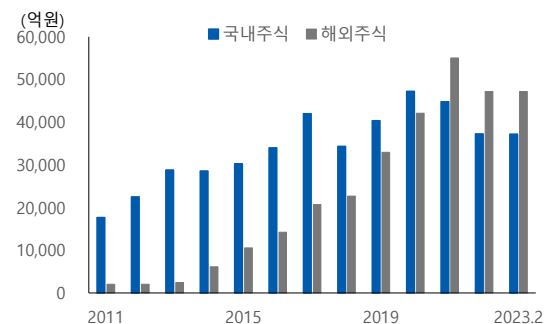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국내 기관, 해외자산과 대체자산 확대

-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수익률 제고와 분산 투자를 위하여 수년 전부터 해외자산과 대체자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왔음
- 사학연금은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넘어섰음.
- 공무원연금은 PEF 등 대체자산 투자 확대 추진

사학연금, 해외주식 비중 확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 순유입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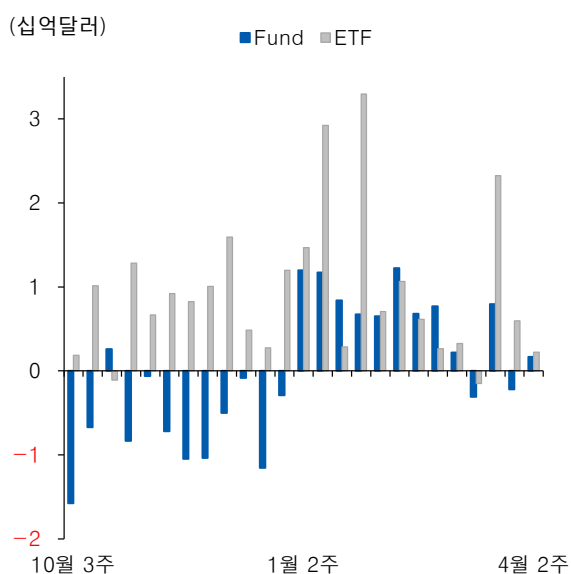
3월 실리콘은행 파산과 CS은행 위기 등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식펀드(ETF포함)은 순유입 규모가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3월 중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세계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은행권 불안이 진정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회복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펀드 시장의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는 3월 하순 이후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서는 분위기이다. 3월은 22일까지는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등이 순매도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룩셈부르크는 3월 순매수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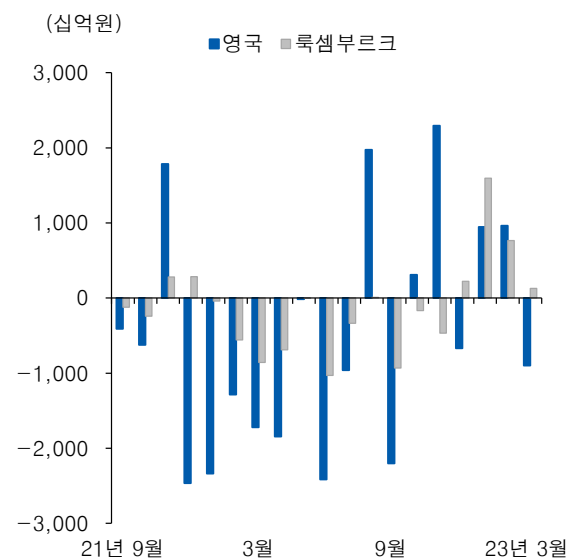
국내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2월 1조 1690억원을 순매수하였고, 3월에는 2조 1,420억원을 순매도하였다. 3월 순매수한 주요국은 아일랜드(9740억원), 룩셈부르크(1270억원) 등 매크로 환경 변화에 민감한 나라들이었으며, 투자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3월 순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차트1] 글로벌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는 순유입 이어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룩셈부르크는 3월 순매수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국내 기관, 해외자산과 대체자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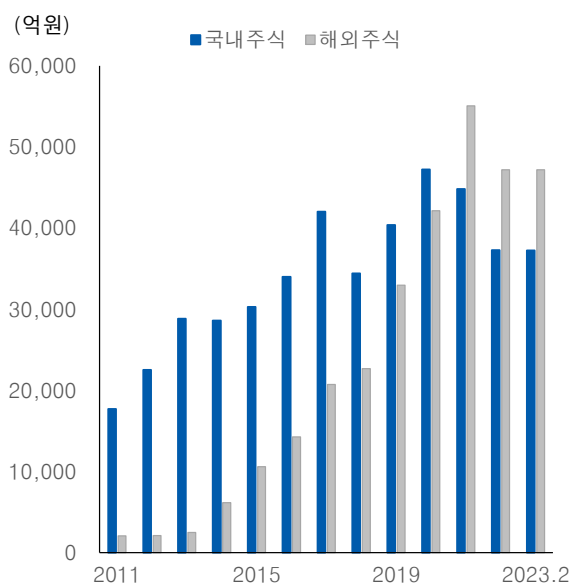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수익률 제고와 분산 투자를 위하여 수년 전부터 해외 자산과 대체자산의 투자를 늘려왔다. 해외자산은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 대체 자산 등에 투자된다.

사학연금은 2023년 2월 국내주식 3.7조원과 해외주식 4.7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해외주식 운용규모가 국내주식 운용규모를 넘어섰다. 사학연금의 2023년 목표 자산비중은 채권 30.3%, 주식 37.2%, 대체투자 21.4%이다.

공무원연금은 대체자산의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규모는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공무원연금은 작년 백주현 CIO가 부임하였으며, 백주현 CIO는 해외사모펀드 등 대체투자를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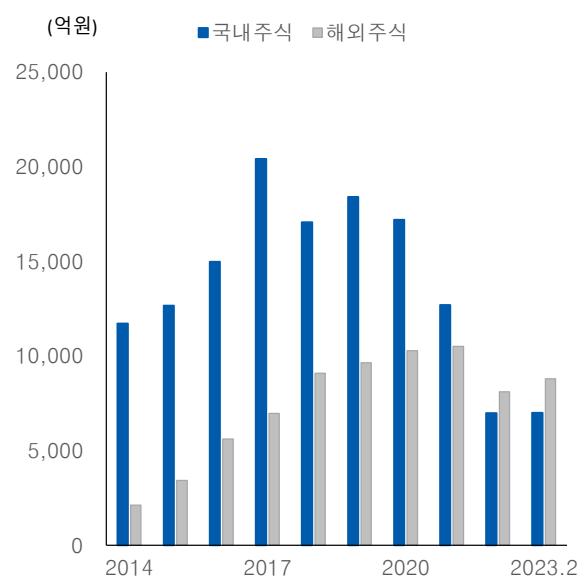
교직원공제회도 대체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22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CalSTRS와는 미국 물류시설 공동투자를 위하여 조인트벤처를 설립한 바 있다.

[차트3] 사학연금, 해외주식 투자 확대



자료: 사학연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공무원연금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규모



자료: 공무원연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국민연금, 해외주식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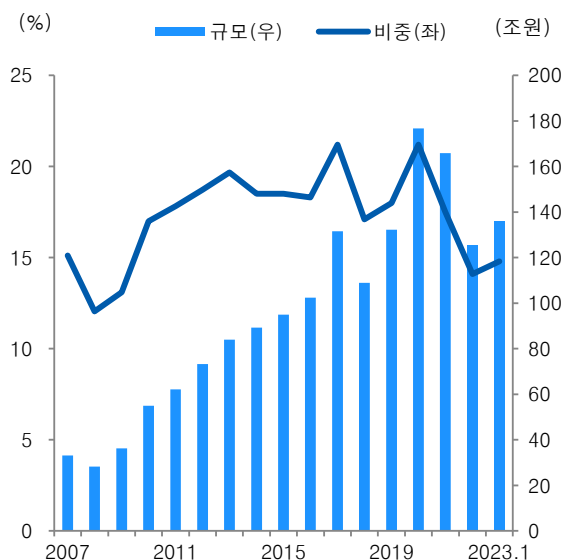
국민연금의 2023년 1월 운용자산은 917조원이며, 2023년말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수익률 제고와 분산 투자 등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해외자산과 대체자산을 늘려나가고 있다.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각각 135.8조원(14.8%)과 250.5조원(27.3%)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국내채권 317.8조원(34.7%), 해외채권 62.9조원(6.9%), 대체투자 144.1조원(15.7%)이 투자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2023년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15.9%), 해외주식(30.3%), 국내채권(32.0%), 해외채권(8.0%), 대체투자(13.8%)로 설정되었다. 국내주식의 목표비중의 허용범위는 $\pm 5\%$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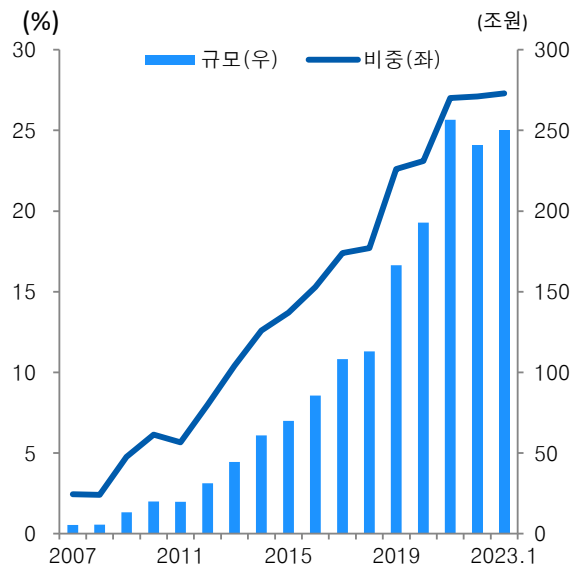
국민연금의 제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0년까지는 기금의 자산이 계속 늘어나 1,70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자산별 운용 규모는 증가 추이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차트5] 국민연금, 연초 이후 주식시장 상승으로 국내주식 비중 확대



자료: 국민연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 규모 250조원 넘어섬



자료: 국민연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